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완전사랑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시편 133:1, 고린도전서 13:13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모든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의 제자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화이다.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은 성탄절에도 들려온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도 사랑, 용서, 눈물, 땀, 피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생기, 생명,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일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램넛트들이 복음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대통령, 장관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금처럼 누룩처럼 퍼져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홀리메이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적인 비밀결사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공부, 기능, 예능, 운동,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양하다.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 RUTC 성전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복음공동체의 역할이다.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 축복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이다. 이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고린도전서 13 장에 나오는 사랑의 체질로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 응답을 받고 일이 커질수록 갈등과 문제가 많아진다. 복음과 성령충만받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축복은 우리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 성경적인 것으로 변화될수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교회에서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누리면 된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예비해 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 누리고, 복음전도하고 전도계획을 짜는 것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순회전도 중 에베소에 있을 때(AD.54~55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린도교회는 사도행전 18 장 1 절에서 4 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고린도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현장에서 70 명의 제자를 찾아낸 것 같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단지 1년 6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급성장하였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항상 기도로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지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많은 흑암, 저주, 재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였다. 고린도는 아테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그리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국제적인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러나 반면에 우상도시였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으며 사람들의 성격도 거칠고 모나고 구부러져 있었다. 그래서 헬라어 '코린디아조마'라는 단어는 '음행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되었다. 그만큼 타락한 현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고린도교회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다. 고린도전서는 당시 이러한 고린도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전해 듣고 답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3 장의 나중심, 6 장의 육신중심, 11 장의 성공중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고린도교회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교회의 그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말씀해주시는 고린도전서 13 장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이 고린도전서 13 장은 사랑 장으로 유명한 성경 본문이다.

1. 첫 번째로는 고린도교회의 문제 10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과 응답과 해답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집중, 서밋타임이 필요한 것이다.

(1) 고린도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성도 간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 장 11 절에서 12 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그들의 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교리나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분열하거나 교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인 '오직복음'만 증거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 장 18 절 말씀을 합독하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탄, 흑암세력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된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고 복음소식이다.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십자가는 인내와 기다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2) 두 번째 문제는 음란이었다. 고린도전서 5 장 1 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성도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5 장 9 절에서 11 절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3) 세 번째로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는 서로 세상법정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6 장 1 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을 가진 증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사랑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고린도전서 6 장 7 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4) 또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7 장 28 절에 장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7 장 24 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 장 38 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다.

(5) 다섯 번째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 장 13 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6) 여섯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 장 2 절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믿음이 작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7) 일곱 번째로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 장 11 절에서 12 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8) 또한 여덟 번째로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부자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11 장 22 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9)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는 은사문제였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방언과 예언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장 전체를 통하여 은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2 장 27 절에 보면 결국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 장 27 절을 보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0) 열 번째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 장 4 절에서 8 절을 보겠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할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2. 두 번째에서는 고린도전서 13 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복음과 완전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문제의 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질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고린도전서 13 장의 말씀을 주셨다.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1) 1 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방언을 강조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깨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것은 천사의 말일지라도 단지 시끄러운 쟁과리 소리일 뿐이다. 2 절과 3 절을 보겠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도 지식도 봉사와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것일까? 감정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린도전서 13 장 4 절부터 7 절에서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15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①사랑은 오래 참고 ②사랑은 온유하며 ③시기하지 아니하며 ④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⑤교만하지 아니하며 ⑥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⑦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⑧성내지 아니하며 ⑨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⑩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⑪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⑫모든 것을 참으며 ⑬모든 것을 믿으며 ⑭모든 것을 바라며 ⑮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의 결과로 받는 응답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랑은 영원한 복음시스템으로 남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3 장 8 절을 보겠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3)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3 장 9 절에서 12 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천국)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 장 13 절에서는 사랑의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완전복음의 절대목표인 완전사랑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CVDIP 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오직의 언약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237 나라, 5 천 종족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원한 교회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 답과 응답과 해답을 위해 24 시간 기도한다면 세계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생령,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40 일이 아니라 하루에 단 4 분만 집중하더라도 9 가지 셋팅의 그림을 미리 보게 될 것이다. 그중 최고의 마스터키는 아가페사랑이다. 그 눈으로 보라는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들의 문제를 기록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절대목표 안에서 절대사랑, 완전사랑을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24시간 기도하다가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